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방송(재) 05 겹쳐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 타임	50 인간극장	00 쿠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감지>	30 KBC 모닝와이드
8 15 쿠모닝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침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친거 55 토틀생방송(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채널A 뉴스 특보	0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재취업 프로젝트 언니가 돌아왔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50 VJ 특종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30 중흥 S-클래스 2014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30 뉴스 특급	00 생명 최전선(재) 40 스카우트(재)		20 통일전망대	30 국회인사청문회 김종덕 문제부 장관후보자
2 40 직인직설	3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김종덕 문제부 장관후보자	
3 55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주로딩 동물 탐정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10 아롱다롱 풍화나라 40 아하! 지구탐험대(재)	00 넷워킹현장 고향이 보인다
4 55 박종진의 레드난마	00 시사진단 55 토틀생방송	25 애니월드 55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재)	30 퓌? 퓌! 키즈스쿨	00 바이클론즈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사랑만화라>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KBC 특집 함께가는 남도 희망을 말하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다큐 공감	00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특별기획 <아강만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혹>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라인	15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매직아이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채널A 일요기획 50 광화문 콘서트(재)	30 국악 한마당 ①:2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40 특선다큐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10 MBC 뉴스24시 20 MBC 100분토론 ①:45 MBC 스포츠토크 쇼 챔피언	35 나이트 라인 ①:05 더 쇼



인기연예인이 본 교황 방한

“친숙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들어”

시복미사 등 4박 5일 동행한 안성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이 뭔가 많이 위로를 받은 느낌이고 기쁨으로 충만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황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이 방한했다가 갈 때는 가만 가나보다 했는데 교황님은 달라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전후해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바빠진 사람은 아마도 배우 안성기(62)일 것이다.

안성기는 “아침부터 미사 준비로 바빠”면서 “오늘 미사에서 제단 앞쪽 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어 교황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아주 좋았다”며 웃었다.

“교황님이 직접하신 시복미사, 방문하신 해미읍성 등지를 함께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난 4박5일 내내 교황님과 함께 했던 느낌입니다. 비록 직접 알현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교황님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죠. 아주 영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숙함을 느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성기는 방한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중 지난 17일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 강론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당시 교황은 성경 시편 구절을 인용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미래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들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성기는 “청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면서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를 주신 것 같다. 우리 모두를 일깨우셨다”고 말했다.

“용서와 화합 강조하신 말씀 가슴에 새겨”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홍보대사 채시라

“오늘 강론 중 용서와 화합을 강조하신 말씀이 가장 가슴에 닿았습니다. 거창한 말씀이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장아요.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용서와 화합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 잘 지내기를 기원했습니다.”

배우 채시라(46)는 18일 이렇게 말하며 행복해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는 MBC TV 2부작 다큐 '파파! 프란치스코'를 촬영하고, 지난 14일에는 KBS 1TV 교황 서울도착 중계방송의 MC를 맡는 등 두 교황 방한을 맞아 바빠 움직였다. 또 이날 오전 교황이 직접 집전한 명동성당 미사에도 남편 김태욱과 나란히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다.

채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을 맞기 전 그분의 이목을 한근 잃었는데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됐다”면서 “교황님의 방한 기간 행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미사에서 교황님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가셔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분이 옆을 지나갔다는 점만으로 굉장히 은총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세레명이 ‘클로티다’인 채시라는 MBC 다큐 촬영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방문한 충남 해미읍성에서 한근 천주교회의 역사를 돌아봤다.

그는 천주교 신자 여부를 떠나 세계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격식을 파괴하는 행보,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모습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과 미소를 보면 누구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 같아요. 웃음이 없을 때는 근엄하지만 환하게 웃을 때는 보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또 ‘저들을 만나야겠다’ ‘저 아이를 쓰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황님의 모습에서 소탈함과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시라는 “언젠가 바티칸으로 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직접 알현하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왔다! 장보리’ 시청률 가뭄 속 홀로 고공행진

지난 17일 30%대 돌파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7일 시청률 30%를 돌파했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왔다! 장보리’는 전날 방송된 38회에서 전국 시청률 30.4%, 수도권 시청률 31.3%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인공 도보리(연서 분)가 20년 전 실종된 장은비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되는 내용이 그려졌다. 지난 4월5일 9.8%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3개월 만인 7월13일 시청률 20%를 넘어선 데 이어 8월3일 25%를 돌파하며 시청률 가뭄 시대에 홀로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주말 오후 8시에 편성돼 전통적으로 시청률 3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KBS 주말극마저 20%대에 주저앉은 지 오래인 상황에서 이런 성과로 더욱 눈에 띈다.

‘왔다! 장보리’는 출생의 비밀과 약녀라는, ‘막장드라마’의 전형적인 소재를 양손에 쥔 채 출발해 태생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씩씩하고 밝은 주인공이 뽐내내는 에너지와 심각한 상황을 이내 넘어버리는 코미디로 ‘막장’ 요소를 상쇄시키고 있다.

50회로 기획된 이 드라마는 내달 말 종영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MBC ‘마마’ 12.5%, SBS ‘끝없는 사랑’ 9.8%, SBS ‘기본좋은 날’ 5.4%로 각각 집계됐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연미로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극한직업
06:10 명 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페루>(재)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중국 내이영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2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태백 삼척>
07:45 보롱보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크프라임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골디와 친구들(재)	<황금비늘의 비밀, 수확대기>
08:20 두다다콩(재)	13: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풍룡이(재)	수확대기<황금비늘의 비밀, 수확대기>
08:35 방귀대장 풍룡이	13:45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50 골디와 친구들	14:00 사이인	17:30 보롱보롱 보로로	23:35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0 와글와글 친구들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05 지식채널e(재)
09:2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4:15 골글! 페퍼는 즐거워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하니	24:10 세계 명작 극장
09:35 빠곰	14:30 부릉!부릉! 부루미즈	19:0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재)	<더 피시픽 2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00:10 <수학 I>(재)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수학 II>(재)	12:15 승승장구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수학 II>
02:30 <수학 I>	14:00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한국사>
04:10 <사회>	15:40 <동아시아사>
05:00 <한국사상>	16:30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세계지리>
06:40 암흑탐스런 <회화 I>	18:10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수학 I>(재)	21:00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뉴스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합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1	16:2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9:50 <역사 2>	18:00 TV 중학 <수학집중 5-1>
10:30 <역사 2>	18:00 TV 중학 <영어 3-2>
11:10 <국어③④>	18:40 <수학 3-2>
11:50 <수학 2(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2:30 등업스공 <수학 1(하)>	20:00 중학개념 풀장대기 <국어>
13:10 <수학 2(하)>	20:40 <영어>
13:50 <과학 2(하)>	21:20 <과학>
14:30 <수학 2(하)>	22:00 등업스공 <수학 3-2>
15:2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중급)
15:5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중학e포스 영문본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9일(음 7월 24일 壬戌)

子	36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하는 시점이다. 48년생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60년생 진전을 보아라. 72년생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둬야겠다. 84년생 마음을 비우고 수중의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자. 행운의 숫자 : 14, 62
丑	37년생 파질 계제가 아니니 일단 수용하고 보자. 49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운 일이 보인다. 61년생 오래된 문제점 때문에 시달리는 형상이다. 73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85년생 자제히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21, 43
寅	38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50년생 양자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렵다. 62년생 이연애가 어려 있어 주변에 관심을 가질 때다. 74년생 본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니 애석함이 남으리라. 행운의 숫자 : 29, 06
卯	39년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51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형태이리라. 63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자. 75년생 규모의 대상을 떠나서 실속을 찾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8, 82
辰	40년생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한다. 52년생 한시를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기적이 잡힐 것이다. 64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으니라. 76년생 승인이 있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73, 69
巳	41년생 순조로운 진행이 계속 될 것이리라. 53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65년생 결점이 드러날 것이니 반드시 고치도록 하자. 77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8, 37

午	42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느니라. 54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는 힘들 것이니 선화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목표에는 못 미칠 것지만 괜찮다. 행운의 숫자 : 52, 59
未	43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55년생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 하자. 67년생 세월을 두고 누적되어 온 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다. 79년생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5, 53
申	44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다. 56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8년생 준수해야 할 것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80년생 핵심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19, 48
酉	45년생 취소되거나 연기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57년생 재물이기 막히게 좋은 날이다. 69년생 한 번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맞다. 81년생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보이니 잠재워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12
戌	46년생 마지막 고비이니 최선을 다하자. 58년생 투철한 의지로 써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70년생 게을리 하다보면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 82년생 징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6, 26
亥	47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되리라. 59년생 한데 모아서 합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71년생 계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허점이 많이 보인다. 83년생 일상 속에서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34